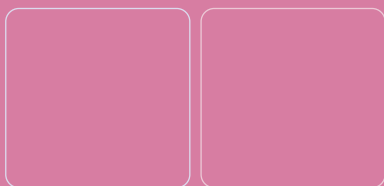


스웨덴의 육아정책(II)

: 교사정책을 중심으로

| 최윤경 · 김윤환 · 이해민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스웨덴의 육아정책(II)

: 교사정책을 중심으로

| 최윤경·김윤환·이혜민

스웨덴의 육아정책(II)

: 교사정책을 중심으로

| 최윤경 · 김윤환 · 이혜민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발간사

저출산의 파고와 영유아 기구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당면과제로 안고있는 현재, 북유럽 국가의 육아친화적인 사회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중요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의 사민주의 모형과 정책적 기반은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속 간행하고 있는 「세계 육아정책동향 시리즈」에서는 지난 2006년 「스웨덴의 육아정책(I) - 유아교육과 보육, 학교교육의 통합을 중심으로」를 통해 스웨덴의 육아정책 전반과 그 중에서도 특히 유보통합을 달성한 국가로서 스웨덴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설계에 대해 고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약 10년이 경과한 2015년 현재, 스웨덴의 육아정책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현황과 제도적 고찰이 주는 시사점을 무엇인지 교사 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기반과 역사적 발전 과정을 가지면서도 선진적 육아정책이 갖는 지향점은 동일하므로, 스웨덴의 육아정책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ECEC 발전에 시사점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목차

CONTENTS

1장	스웨덴의 육아정책 개관 · 02
	1. 육아정책 특성 및 지원체계 · 02
	2. ECEC 기관 이용 현황 · 07
	3. ECEC 비용 지원 체계 · 14
2장	ECEC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19
	1. 2010년 교육과정(Läroplan for Förskola - Lpfö 98) 개정 · 19
	2. 2011년 학교법 개정을 통한 교육개혁 · 25
3장	ECEC 질 제고를 위한 영유아교사 정책 · 26
	1. 교사 현황 · 26
	2. 교사 양성과정 · 33
	3. 교사 자격 체계 · 39
	4. 교사 연수 · 43
	5. 교사 근로환경 및 복지 · 51
4장	스웨덴 육아정책의 시사점 · 58
참고 문헌	· 63

주요 지표를 통한 스웨덴 국가 Profile¹⁾

- 1인당 GDP 4만5천불(USD 45,298) 2014년 기준
 - 정부 공공 사회복지 지출: GDP의 28.1%
 - 취업률: 15-24세 48.3%, 25-54세 85.6%, 55-64세 74.0% ; 시간제 근로 비율 14.3%
 - 실업률: 7.2% (남성 7.4%, 여성 7.0%)

- 인구 980만 (9,838,480) 2015년 10월 기준
 - 연간 인구증가를 약 1%, 합계출산율 1.9명
 - 15세 미만 아동 인구 비율 16.5%,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19.9%
 - 영아사망율 2.7%, 기대수명 83.8세
 - 외국인 비율 7.2% - 2013년 기준

- 여성노동참여율 69.1% (남성 74.7%)
 - 다양한 가족구조 (별거, 이혼, 동거가족)
 - 높은 조세부담율 (50-55%)
 - 지방자치제 (290개 municipalities)

- 역사적 특징
- 토착 사회민주주의
 - 중세: 지리적 위치 때문에 농노제가 성립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자연조건하의 농업기반.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는 빈곤한 자작농들이 광장 중심의 촌락공동체를 구성. 태양을 평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경작지 분할
 - 근대: 19세기 말(1870년경)에 이르러서 산업혁명을 겪은 스웨덴은 19세기초부터 봉건제의 붕괴로 농촌의 빈곤화 진행

- 정치적 배경
- 농업기반의 평등지향과 공동체적 문화
 - 뒤늦은 산업화로 인해 스웨덴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서구 국가들 중 농업종사 인구 비중이 큰 편이었음. 전통적인 공동체적 문화가 남아있으며, 이는 사민주의의 이념과 통치방식에 근간이 됨.
- 1889년 사회민주당 결성 (연대성, 보편성, 평등에 기초). 시민당은 1932년 선거 승리 이후 1976-82년과 1991-94년의 두 차례 공백(9년간)을 제외하고는 2006년까지 60여년간 집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개혁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

1) OECD Stat(2015), <http://stats.oecd.org>

OECD Data(2013, 2014), *Domestic product*, Retrieved from <https://data.oecd.org/gdp/gross-domestic-product-gdp.htm>

Statistics Sweden, (2015), *Preliminary Population Statistics 2015*, Retrieved from http://www.scb.se/en_/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Population/Population-composition/Population-statistics/Aktuell-Pong/25795/Monthly-statistics--The-whole-country/25890/

스웨덴의 육아정책 개관

1. 육아정책 특성 및 지원체계

스웨덴의 육아정책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노동시장 참여와 부모의 균등한 육아 참여에 근거하여, 영유아기 공보육·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발전시켜왔다. 남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가구 모형(Dual-earner model)에 기반한 사회발전 모형으로, 이는 유럽연합이 지향한 리스본 전략²⁾이 생애초기 모든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교육·보육(ECEC) 제공에 기초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Samuelsson & Sheridan, 2009, European Parliament, 2010). 스웨덴의 ECEC는 모든 아동기 서비스와 의무교육 체계가

2)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은 유럽연합의 출범과 함께 EU를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고한 사회적 응집에 기초하여 경쟁력 있고 역동성 있는 지식 기반 경제사회로 만들고자하는 10년 단위 계획을 가리킴(출처: European Parliament, (2010). *The Lisbon Strategy 2000-2010: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methods used and results achieved*, Retrieved from <http://www.europarl.europa.eu/document/ctivities/cont/201107/20110718ATT24270/20110718ATT24270EN.pdf>)

교육부 산하 완전 통합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취학전 영유아기 교육·보육(ECEC)과 이후 학교 체계가 각기 다른 연령과 유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예산 기반과 규제, 교직원 대상 교육과 훈련, 서비스 전달의 측면에서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OECD, 2012). 또한 스웨덴의 ECEC 정책은 부모 및 가족 대상 육아지원의 체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육아지원에는 육아휴직 및 부모보험과 각종 수당이 있으나, 이는 ECEC 기관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과 연동되어 있다. 즉 ECEC 기관 비용 지원은 비용 상한제 하에서 자녀수와 이용시간, 부모소득에 따라 다르며, 이는 맞벌이 및 육아휴직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스웨덴의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은 크게 ① 육아휴직, ② 수당지원 (임신수당, 아동수당, 주거수당 등), ③ 기관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을 기본으로 하면서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는 스웨덴의 육아지원을 대표하는 근간이 되는 제도로, 양성평등 모델에 기반하여 부모 모두에게 제공되는 긴 육아휴직 기간(최소 8개월~최대 16개월)의 특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높은 소득 대체율, 부성휴가와 부성육아휴직의 활성화, 부모 동시육아휴직제(2012년)을 도입하여 양성평등의 육아참여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육아휴직에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휴가가 포함되는데, 부모가 공유하는 480일내에 부모 각각 60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육아휴직 13개월(첫 390일) 동안 SEK 37,083 한도 내에서 평균 급여의 약 80%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월 최대 SEK 37,083(2015년 기준 한화 약 520만원)이다. 나머지 3개월은 기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고정된 비용으로 하루 일당(SEK 60)을 받도록 되어있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³⁾

2008년 부모의 자녀양육 분담을 위해 양성평등보너스 제도(Gender equality bonus) 도입하여, 부성 육아휴직 시 세액공제의 추가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유급 육아휴직 9개월을 부부가 동등하게 나눠 사용했다면 양성평등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육아휴직 정책은 근로시간 정책과 병행하여, 자녀가 초등 1학년까지 근로시간의 25%를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급여는 근로시간만큼 받을 수 있다(The Official site of Swenden, 2015). 육아휴직제도는 종일근무 외에 반일근무와 하루 1/4, 1/8 시간제 근무 시에도 부모에게 적용 가능하여,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도 육아휴직과 함께 부모 모두에게 적용된다(OECD Family database, 2015).

나. 아동수당

스웨덴의 아동수당 지급은, 자녀가 16세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SEK 1,050 (2015년 기준 한화 약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자녀 수에 비례하여 2자녀 이상 가구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수당의 사용처를 정부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나, 부모들은 수당을 신생

3) The Official site of Swenden, (2015). *10 Things that make Sweden family-friendly*. Retrieved from <https://sweden.se/society/10-things-that-make-sweden-family-friendly/>

아/영아기에는 육아생활품을 사는 데에, 피르스콜라⁴⁾를 보내기 시작한 이후에는 기관 등록비가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 되므로 정부가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피르스콜라에 보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밖에 임신수당, 저소득층 위주의 주거수당 등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보편적 지원 설계 하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08년 우파 연합정권에서 기관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추가로 도입되었으나, 이용률은 높지 않다.

〈표 1〉 스웨덴 국가지원 아동수당

단위: SEK (USD)

구분	월 총 아동수당	다자녀가구 추가수당	합 계
자녀 1명	1,050	-	1,050 (123불)
자녀 2명	2,100	150	2,250 (257불)
자녀 3명	3,150	604	3,754 (439불)
자녀 4명	4,200	1,614	5,814 (680불)
자녀 5명	5,250	2,864	10,414 (1,218불)

자료: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015). Child allowance. Retrieved from http://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adoptera_barn/bambidrag/lut/p/a0/04_Sj9CPyKssy0xPLMnMz0vMAfGz0JNPFycDd2dDbwNXP1dDBx9jTwDzc1DjA2czS DU_P0C71dFGEMrEd2/

양육수당은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지원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일제 서비스의 대안으로 도입되어, 부모는 시간제 보육 이용과 양육수당 수령 및 다른 육아지원서비스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 보육료·교육비 지원

스웨덴의 보육·교육(ECEC) 기관, 즉 유아학교(피르스콜라, förskola)는 노동자로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강조하는 포괄적 가족정책에 기반하여

4) 스웨덴 förskola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기관 명칭으로, 교육부 산하이나 종일제 보육교육시설의 특징을 가진, 영유아 통합 ECEC 기관으로서 preschool(유치원, 또는 유아학교, 종일제 기관)로 표기함.

대부분 연중무휴, 전일제(6:30-18:30)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의 근로 시간을 고려하여 긴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⁵⁾ 취업 또는 학업 중인 부모의 자녀가 기관 이용을 원할 경우 3~4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아동이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닐 수 있게 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⁶⁾

ECEC 기관 이용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모의 삼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모 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s)를 도입하여 상한 금액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며 대개 보육·교육 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정부 지원액은 부모 자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지자체마다 다른 비용을 수납하고 있다. 부모 자부담 비용은 비용상한제로 인해 가구소득의 3% 이내, 전체 비용의 약 10~15% 수준을 유지하여, 월 최대 SEK 1,287(한화 약 18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가구소득과 자녀연령, 자녀수,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⁷⁾

2002년부터 모든 3~6세 아동에게 주당 15시간(연간 525시간)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9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가 취업/학업 중인 경우 preschool 이용시간을 주당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⁸⁾ 2016년부터는 만 2세로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다.⁹⁾

5) Europa, (2015). *Sweden: Successful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Retrieved from http://europa.eu/epic/countries/sweden/index_en.htm

6)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The Swedish Education System*, Retrieved from <http://skolnet.skolverket.se/polopoly/utbysys-eng/>

7)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Preschool: Fees*, Retrieved from <http://www.skolverket.se/om-skolverket/andra-sprak-och-lattlast/in-english/the-swedish-education-system/preschool/fees-1,72241>

8) 이해원 (2013).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p. 80. 서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 Hillman, J., & Williams, T. (2015). *Early years education and childcare: Lessons from evidence and future priorities*. London: Nuffield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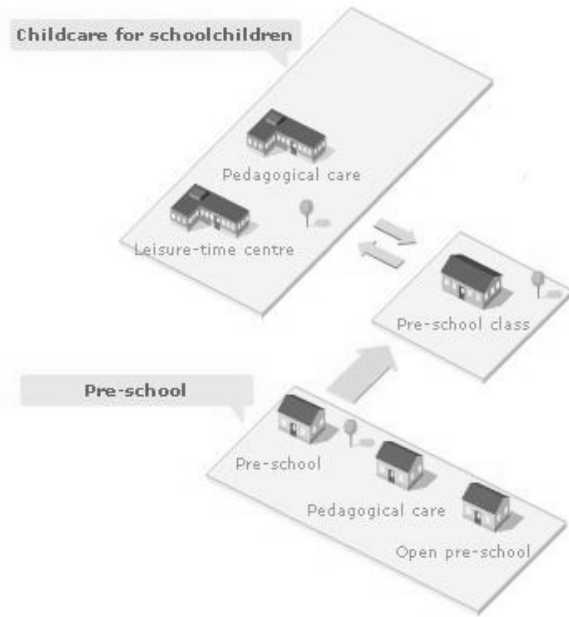
2. ECEC 기관 이용 현황

가. ECEC 기관 유형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피르스콜라, 개방 피르스콜라, 유아학급(preschool class 또는 Kindergarten), 가정보육 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¹⁰⁾. 우리나라에 비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만 7세로 1년 늦으나, 만 6세를 대상으로 초등학교내 유아학급(pre-school class, förskoleklass)의 제공으로 사실상 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취학전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 이는 ECEC와 초등학교의 중간단계로 유아학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와 연계를 중시하는 학교 체계라 할 수 있다. 유아학급은 반일제 교육과정과 방과후 보육의 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와 취학 이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스웨덴의 교육·보육(ECEC) 시스템은 취학 전후로 나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다. 취학 전후 연계성의 확보를 위해 동일한 비형식적 시간제 서비스 Pedagogical care가 제공되고 있으며, 비취업모 또는 종일제 기관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개방형 피르스콜라와 여가활동센터에서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육과 교육이 일원화 된 체계로, 일관성과 연계성이 확보된 서비스 지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유형과 이용에는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구분이 존재하며, 다양한 서비스 유형이 제공되고 있다.

10) 취학 후 학교체계는 모든 학생을 위한 의무교육(10년과정), Sami족을 위한 Sami school, special school, and high school로 구분됨.



주: 자료에서 영유아기에 다닐 수 있는 기관만을 편집하여 제시함.

출처: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The Swedish Education System, Retrieved from <http://skolnet.skolverket.se/polopoly/utbsys-eng/>

[그림 1] 스웨덴의 영유아 교육·보육(ECEC) 체계

<표 2> 스웨덴 ECEC 기관 유형 및 특징

기관		이용아동 연령	특징
피르 스콜라	피르스콜라 (pre-school)	만 1~5세	취업 혹은 학업 중인 부모 이용 가능성이 원칙. 미취업 상태이거나 육아휴직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 연중무휴 종일제(부모 근무시간에 따라 조정 가능) 평균 3학급 정도로 구성, 학급당 인원은 15~24명 정도로, 3명의 교직원 배치. 지자체별로 비용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
	pedagogical care	만 1~12세	비형식적 기관으로, 2009년부터 Family daycare 에서 pedagogical care로 명칭 변경.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데이케어 하는 경우만 1~12세 이용 가능, 보통 만 1~5세 이용. 가정보육과 방과후센터는 취업/학업중에만 이용가능. 지자체별로 비용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

기관		이용아동 연령	특징
	개방형 피르스콜라 (open preschool)	만 1~5세	전업주부를 위한 시설. 비형식적 기관. 기관(피르스콜라)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부모/양육자와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제 (정기적 등록 필요없음). 부모, 가정보육교사 등이 함께 방문하여 가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교재 등을 이용. 주로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함. 학기중-시간제위주, 방학중-전일제 위주로 제공됨.
	유아학급 (pre-school class, förskoleklass)	만 6세 (취학 전 아동)	취학 직전 유아를 위한 기관으로 초등학교 내 위치. 반일+방과후보육으로 구성됨. 높은 이용률(99%)로 준 의무교육에 해당함. 연간 525시간이 무상으로 제공됨.
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	여가활동센터	만 6~12세	부모가 취업/학업 중인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가 휴일인 경우 아동을 보육하고,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발달을 지원함. 연중무휴, 시간제 서비스 제공. 지자체별로 비용 상한액이 정해져있음.
	pedagogical care	만 1~12세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데이케어 를 하는 경우에 해당. 가정보육과 방과후센터는 부모가 취업/학업 중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 지자체별로 비용 상한액이 정해져있음.

출처: 1)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The Swedish Education System*. Retrieved from <http://skolnet.skolverket.se/polopoly/lutbsys-eng/>

2) 문무경 (2006). *스웨덴의 육아정책: 유아교육과 보육, 학교교육의 통합을 중심으로*. 서울:육아정책개발센터.

3) 이삼식 (2012). 외국의 보육·양육정책: 스웨덴 사례. *보건·복지 Issue & Focus*, 169호., 1-8.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 정책은 「학교법」에 따라 육아 관련 업무가 290개의 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지원 및 ECEC 관련 모든 책임을 전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아학교와 여가활동센터 등의 공급률을 조절하고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을 관리 감독하며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실행하고 있다. 중앙부처 교육과학부는 주로 국가수준의 정책 결정을,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또는 교육청은 중앙과 지방수준에서 육아지원 서비스에 관한 전체 평가와 자료수집,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나. ECEC 기관 이용 현황

2013년 기준으로 만 1~6세 전체 영유아의 약 87%가 ECEC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3%는 다른 민간/사립 서비스 또는 가정내 양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영아의 기관 이용률이 모 취업률에 버금가는 7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만 3~6세의 경우 94%의 높은 기관 이용률을 갖고 있다. 사실상 대다수의 아동이 공적인 ECEC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종일제 피르스콜라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71%로 이 역시 모 취업률을 반영한 수치로 보인다. ECEC 기관 서비스의 경우 가정보육시설 이용률이 2013년 기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월 미만의 아동은 육아휴직제도로 인해 육아지원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고 있다. 평균적으로 생후 약 15~18개월부터 피르스콜라에 다니기 시작하여, 만 1세 영아의 기관 이용은 육아휴직이 끝난 1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 0, 1세의 기관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만 6~12세 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 보육 및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도 50%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표 3〉 2009-2013 ECEC 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분	1~2세	3~6세	1~6세			
			전체	피르스콜라	여가활동센터	가정보육시설
2009	70	94	86	69	13	3
2010	70	95	86	70	14	3
2011	71	95	86	70	14	3
2012	72	94	87	71	14	2
2013	71	94	87	71	14	2

자료: Statistics Sweden (2014), *Yearbook of Educational Statistics 2015*.

〈표 4〉 2013 연령별 ECEC 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분	2세	3세	4세	5세 이상
2013	88	93	95	98

자료: OECD (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doi: <http://dx.doi.org/10.1787/eag-2015-en>

만 6세 이하의 아동 중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 87%이며, 만 1~2세 아동 중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71%이고, 만 3~6세 아동 중 이를 이용하는 비율은 94%에 달한다. 이 중 피르스콜라를 이용하는 비율이 71%로 가장 높다. OECD Education at Glance에 보고된 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연령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만 2세 이하가 46%, 3~4세 94%, 5세 이상 98%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각 21%, 81%, 98%)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5〉 2009-2013 연령별 피르스콜라에 다니는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1세 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이상	전체
2009	7	52,068	95,138	99,063	98,886	98,916	1,621	381	446,080
2010	15	53,171	97,436	101,846	103,451	100,243	1,499	335	457,996
2011	14	56,608	100,227	104,096	104,844	104,420	1,534	418	472,161
2012	0	55,799	104,477	107,015	106,978	105,970	1,407	663	482,309
2013	4	56,434	101,668	111,137	109,932	108,032	1,656	412	489,275

자료: Statistics Sweden (2014), *Yearbook of Educational Statistics 2015*.

〈표 6〉 2009-2013 연령별 여가활동센터에 다니는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5~6세	7~9세	10세 이상	전체
2009	86,592	231,768	39,262	357,622
2010	90,125	244,578	43,785	378,488
2011	90,851	256,703	49,044	396,598
2012	93,977	263,373	53,905	411,255
2013	95,072	269,727	61,146	425,945

자료: Statistics Sweden (2014), *Yearbook of Educational Statistics 2015*.

〈표 7〉 2013년 스웨덴 ECEC 유형별 등록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등록 아동 수			
	전체	피르스콜라	여가활동센터	가정보육시설
1세 이하	4	4	0	-
1세	58,393	56,434	1,959	-
2세	105,079	101,668	3,411	-
3세	114,550	111,137	3,413	-
4세	113,214	109,932	3,282	-
5세	111,539	108,032	2,885	622
6세	96,448	1,656	342	94,450
6세 이하 등록 아동 수	599,227	488,863	15,292	95,072
7세	96,552		261	96,291
8세	91,413		234	91,179
9세	82,443		186	82,257
10세	38,249		152	38,097
11세	16,395		119	16,276
12세	6,877		104	6,773
12세 이하 등록 아동 수	332,341	412	1,056	330,873
0~12세 등록 아동 수	931,568	489,275	16,348	425,945

자료: Statistics Sweden (2014), *Yearbook of Educational Statistics 2015*.

실제 아동수로는 2013년 기준으로 약 489,000명의 만 1~6세 아동이 피르스콜라에 다니고 있고, 95,000여명의 만 5~6세 아동이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높은 ECEC 기관 이용률 하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ECEC 기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8〉 육아지원서비스 기관 및 등록 아동 수: 2009~2013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기관	등록아	기관	등록아	기관	등록아	기관	등록아	기관	등록아
뢰르스콜라	9,866	446,080	9,869	457,996	10,033	472,161	9,991	482,309	9,891	489,275
공립	7,280	362,990	7,223	370,290	7,339	380,263	7,267	387,357	7,142	391,874
사립	2,586	83,090	2,646	87,706	2,694	91,898	2,724	94,952	2,749	97,401
여가활동센터	4,328	357,622	4,290	378,488	4,277	396,598	4,316	411,255	4,178	425,945
공립	3,718	323,007	3,650	340,037	3,603	354,676	3,619	365,987	3,514	377,761
사립	610	34,615	640	38,451	674	41,922	697	45,268	664	48,184
개인 서비스 제공자	2,586	83,090	2,646	87,706	2,694	91,898	2,724	94,952	2,749	97,401

자료: Statistics Sweden (2014), *Yearbook of Educational Statistics 2015*.

뢰르스콜라와 여가활동센터 모두 공립기관의 수가 많으며, 등록 아동 수 역시 공립기관에 다니는 경우가 다수이다. 사립/영리 기관의 비중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립시설의 대부분이 비영리 기관으로 부모협동, 기업 등 단체, 직원협동 등에서 운영하는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최근 부모의 높은 만족도에 근거하여 영리 사립기관(independent schools로 칭함)의 비중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추이면에서도 2009년 기준으로 사립기관의 비율은 26.2%였으나 2013년 기준 사립기관 비율이 27.8%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립 시설에의 공적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공보육의 문화적·교육적·종교적 대안으로 사립보육시설 증가하여 부모의 선택권 증진이 보장되고 있다. 한편, 가정보육모(family child minder)와 같은 개인서비스(pedagogical care)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3년 전체 등록아 기준 전체 약 9.6%이며, 여가활동센터 42.1%, 종일제 뢰르스콜라 48.3%로 보고된다.

3. ECEC 비용 지원 체계

가. ECEC 비용 지원 특성

스웨덴은 부모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만 3세 이상의 모든 아동에게 주당 15시간, 연간 525시간, 즉 1일 3시간 이용 반일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비취업 부모의 경우 그 이상의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취업 시에는 종전대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의 퓌르스콜라 이용에 있어 부모소득과 이용시간, 그리고 자녀수 등에 따라 부모부담 비용과 지원금액이 지자체별로 책정된다.

스웨덴의 영유아 기관 이용 비용의 지원 체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대로 영유아 기관 이용 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모부담의 삼자 분담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ECEC 기관에는 인건비와 시설비 지원을 위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부모 부담 비용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금액 이상으로 ECEC 비용에 대한 부모 수납을 금지하여, 기관 이용에 대한 부모부담 비용이 대체로 가구소득의 3% 이내, 실제 비용의 평균 10~15% 내외로, 월 최대 SEK 1,287 (2015년 10월 기준, 한화 약 180,000원)을 넘지 않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여 대개 ECEC 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부모 비용 상한제는 공·사립 기관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비용 상한선은 자녀 출생순위에 따라 달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자녀수별 비용상한선 차등).¹¹⁾ 한편, 2016년부터는 부모부담 비용 상한액을 올릴 계획을 예정하고 있다

11) Europa, (2015), *Sweden: Successful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Retrieved from http://europa.eu/epic/countries/sweden/index_en.htm

(표 10, 표 12).

〈표 9〉 피르스콜라 부모부담 비용 상한액: 2015년 현재

구분	상한 비율	상한액
첫째 자녀	월 소득의 3%	1,287 (약 18만원)
둘째 자녀	월 소득의 2%	858 (약 12만원)
셋째 자녀	월 소득의 1%	429 (약 6만원)

주: 2015년 9월 17일 기준 환율 적용(1 SEK=141원)

자료: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Förskola, pedagogisk omsorg och fritidshem: Avgiftsnivåer för maxtaxa*. Retrieved from <http://www.skolverket.se/skolutveckling/statsbidrag/forskola-pedagogisk-omsorg-fritidshem/maxtaxa/avgiftsnivaer-for-maxtaxa-1.9183>

〈표 10〉 피르스콜라 부모부담 비용 상한액: 2016년 예정

구분	상한 비율	상한액
첫째 자녀	월 소득의 3%	1,313 (약 18만 5천원)
둘째 자녀	월 소득의 2%	875 (약 12만 3천원)
셋째 자녀	월 소득의 1%	438 (약 6만 2천원)

주: 2015년 9월 17일 기준 환율 적용(1 SEK=141원)

자료: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Förskola, pedagogisk omsorg och fritidshem: Avgiftsnivåer för maxtaxa*. Retrieved from <http://www.skolverket.se/skolutveckling/statsbidrag/forskola-pedagogisk-omsorg-fritidshem/maxtaxa/avgiftsnivaer-for-maxtaxa-1.9183>

시간제 서비스인 여가활동센터(leisure-time center)와 방과후보육에 대해서도 자녀수와 이용시간, 가구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상한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종일제 서비스 비용과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시간제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2016년 차년도 비용 상한액이 제시되어 있다.

〈표 11〉 여가활동센터/에듀케이션케어(시간제) 부모부담 비용 상한액: 2015년 현재

구분	상한 비율	상한액
첫 번째 자녀	월 소득의 2%	858 (약 12만원)
두 번째 자녀	월 소득의 1%	429 (약 6만원)
세 번째 자녀	월 소득의 1%	429 (약 6만원)

주: 2015년 9월 17일 기준 환율 적용(1 SEK=141원)

자료: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Förskola, pedagogisk omsorg och fritidshem: Avgiftsnivåer för maxtaxa*. Retrieved from <http://www.skolverket.se/skolutveckling/statsbidrag/forskola-pedagogisk-omsorg-fritidshem/maxtaxa/avgiftsnivaer-for-maxtaxa-1,9183>

〈표 12〉 여가활동센터/에듀케이션케어(시간제) 부모부담 비용 상한액: 2016년 예정

구분	상한 비율	상한액
첫 번째 자녀	월 소득의 2%	875 (약 12만 3천원)
두 번째 자녀	월 소득의 1%	438 (약 6만 2천원)
세 번째 자녀	월 소득의 1%	438 (약 6만 2천원)

주: 2015년 9월 17일 기준 환율 적용(1 SEK=141원)

자료: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Förskola, pedagogisk omsorg och fritidshem: Avgiftsnivåer för maxtaxa*. Retrieved from <http://www.skolverket.se/skolutveckling/statsbidrag/forskola-pedagogisk-omsorg-fritidshem/maxtaxa/avgiftsnivaer-for-maxtaxa-1,9183>

부모 부담 비용이 이용시간과, 소득, 자녀수, 지역에 따른 차등지원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비용 수준은 다르다. 육아휴직 및 실직의 경우에도 부모 취업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기본 이용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나.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선택권 강화 및 서비스 이용 다양화¹²⁾

스웨덴의 바우처 제도는 지역주민이 지자체에 납부한 세금을 지자체가 다시 아동에게 바우처로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바우처 방식을 통한

12) 한유미·오연주·권정윤·강기숙·백석인 (2005). *스웨덴의 이동보육제도*. 서울:학지사.

서문희·최윤경·최혜선·성혜영 (2010).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지원체계 개편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참조 및 재인용.

이동별 지원이란, ECEC 비용이 부모가 선택한 시설에 다니는 아동(1~10세)을 위해 시설로 직접 지원함을 의미한다.

지방분권화와 함께 진행된 가장 큰 정책변화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선택권 강화에 기반한 바우처 제도의 도입으로, 각 지자체 내에서도 어느 지역단위에 속하느냐에 따라 기관 유형별로 상이한 지원을 받는 등 각 지역은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 기준과 서비스 비용 및 세율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바우처 제도의 도입으로 지자체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ECEC 서비스, 즉 사설 및 비공식적 가정보육 서비스와 가족내 보육 원조, 그리고 다른 형태의 학습활동 참여에도 그것이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고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비용을 지원한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는 2009년 7월부터 적용되었으며, 균등한 가정보호수당(a flat-rate home care allowance)이 책정되고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통해 부모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정식 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가정보육모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국가와 부모의 ECEC 기관 선택과 비용 부담, 그리고 비용 지원 방식에서 보수당과 시민당의 정책적 입장에 차이가 있었다. 보수당이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ECEC 기관 선택의 자율권을 강화하였다면, 시민당은 공보육 체계의 확립을 통해 부모의 선택과 상관없이 공립 기관에서 균등한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도록 하는 시설 지원방식을 추진하였다. 오랜 기간 시설별 지원방식을 통한 공보육·교육의 토대 위에, 1991년 보수당 집권 이후 지자체는 공·사립 기관에 동일한 보조금 지급과 재정지원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바우처 지원의 도입으로 과거 시설간 균등지원에서 이동별 지원방식으로 바꾸어 이동수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변화를 꾀하였다. 2006년 우파 연합의 (재)등장으로 ECEC 서비스와 활동의 선택권 보장, 사립 ECEC의 증가 등 서비스의 다양성을 강화하였다. 부모들에게 ECEC 바우

처 제도를 통해 어떤 형태의 서비스도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시설간 경쟁을 유도하고 ECEC의 질을 높여 각 가정과 이동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와 내용을 제공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꾀하였다.

스웨덴 ECEC 지원의 보편성은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 인정과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공공 보육시설에 국한된 지원이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보육과 사설/민간 ECEC, 부모 협동 보육, 가정보육모 고용, 혹은 가족 구성원이 번갈아 가며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른바 세 가족 보육(three-family day care) 등과 같은 비공식적·사적 보육의 형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바우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2004년 나가 지자체의 지원을 살펴보면(한유미 외, 2005, 서문희 외, 2010 재인용) 가정보육모의 자녀는 주당 20시간의 피르스콜라 이용권을 지급받으며, 실직 부모는 취학전 자녀의 경우 주당 최대 15시간의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부모가 다시 고용되거나 학업을 시작하면 더 많은 시간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중인 부모는 원칙적으로 ECEC 바우처를 받을 수 없으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는 이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요건을 우선순위에 맞게 고려한 지원방식이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과 수당 등 복수의 지원을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즉 육아휴직 중의 부모도 온전히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 기본지원시간에 해당하는 ECEC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식의 변화 역시 지자체의 자율권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별로 여전히 시설별 지원방식을 고수하는 사례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부담 보육료가 저렴하고, 교사 인건비 등의 비용이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공적 체계 하의 바우처 제도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ECEC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1. 2010년 교육과정(Läroplan for Förskola - Lpfö 98) 개정¹³⁾

스웨덴의 모든 교육과정과 수업내용은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의 지침에 따라 수립되고 실행된다. 스웨덴은 1998년 8월 일원화된 취학 전 교육과정(Lpfö 98)의 제정을 통해 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이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이관, 유아교육의 학교교육으로의 편입을 통해 유보통합을 이루고 교육활동과 보육서비스를 아우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제정하였다. 이후 영유아기 보육·교육은 교육법과 학교법에 근거한 교육제도의 일부로서 국가수준에서

13) 한유미·오연주·권정윤·강기숙·백석민 (2005). *스웨덴의 이동보육제도*. 서울:학지사.
서문희·최윤경·최혜선·성혜영 (2010).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영리원체계 개편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참조 및 재인용.

만들어진 취학전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피르스콜라 교육과정은 교육 자체보다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놀이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매일 2~3 번의 식사가 제공되는 등 교육활동과 돌봄 기능 모두가 제공되는 통합 보육·교육 과정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서문희 외, 2010).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학전 교육과정은, 피르스콜라의 주요 목적이 아이들이 스웨덴 사회의 기본 가치를 습득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약자에 대한 연대책임, 양성평등 및 인간평등의 가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생명의 불가침성 등을 교육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 ECEC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아동이 사회참여와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이동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피르스콜라 환경 내에서 아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집단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아동기를 아동의 호기심과 자발성, 아이디어가 중시되어야 하는 시기로 보고, 취학전 ECEC 과정을 이후 학교생활과 성인기에 대한 준비도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피르스콜라는 상위의 교육목표와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를 추구하나, 프로그램 내에서는 개별 아동의 성과를 구조화된 도구나 형식적 평가도구로 측정하지 않고 비형식적 방법을 통해 평가한다. 셋째, 과거 취학전 보육이 공익 서비스로 개념화되어 국가수준에서 표준화되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추구하였다면, 지방분권화의 진행과 함께 지역적 특색과 요구에 따른 다양성의 수용으로, ECEC 유형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과 이주 이동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 외,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몬테소리, 레지오 에밀리아, 숲 유치원 등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벗어난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ECEC 내용의 다양화를 피하고 있다. 넷째, 스웨덴의 가치 중심의 ECEC 목표는 개별 가정과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유관 사회 서비스 및 교육 기관과 가정의 참여 및 협조, 지역공동체와의 연계성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한유미 외, 2005).

영유아기 교육과정은 종일제 피르스콜라 프로그램과 시간제 개방형 피르스콜라 프로그램, 공립 피르스콜라 입소를 기다리는 동안 비형식적 가정보육 프로그램, 그리고 만6세 무상교육 유아학급에 적용된다.

가. 종일제 피르스콜라 프로그램

피르스콜라 취학전 교육과정은 종일제로,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스웨덴의 대표적인 preschool 유형이다. 교육부 산하로 통합된 기관으로,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로 불리는 것이 보편적이나, 종일제 특성이 강한 보육 프로그램을 내포하고 있어 종일제 보육시설로 불리기도 한다. 종일제 피르스콜라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가치, 과제, 교육목표와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나 구체적인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구분된 영역별 교육내용과 방법을 기술하기 보다는 아동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위주로 제시되어 있다.

피르스콜라에서는 아동을 교육하고 발달을 돕는 ‘과정’에 초점을 두며 아동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학전 교육과정의 적용에 있어 궁극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방법의 선택 및 개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주어지는, 비구조화 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특징을 지닌다 (Skolverket, 2015, 한유미 외, 2005, 서문희 외, 2010). 취학전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는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덕목의 지향, 놀이 및 창의성 중심의 보육·교육 과정의 통합,

아동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환경에의 영향력 중시, 부모의 연대의식과 참여, 유아학급 및 학교교육 그리고 기타 보육시설과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등 국가수준의 5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수준 취학전 교육과정 대비, 각 지자체는 지역만의 특색있는 자체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개별 교육시설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지자체의 학교교육계획(local school plan) 등을 고려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사가 수립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한다. 대체로 스웨덴의 종일제 활동의 특징은 비형식적이고 비구조화되어 있으며, 야외 활동 및 자유놀이 중심의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중심(한유미 외, 2005)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과정의 실행이나 돌봄과 놀이위주의 교육 활동으로써 보육 프로그램 특성을 많이 띠고 있으며, 교사 재량으로 구체화되고 운용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르스콜라가 오전 6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 안의 영유아의 이용시간은 다양하며, 대체로 가장 많은 이용시간 유형은 1주에 30시간으로 1일 약 6시간 내외이다. 그러나 더 긴 또는 짧은 시간의 이용이 가능하며 실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만 3세부터 하루 3시간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많은 아동이 그보다 길게 이용한다.

나. 시간제 개방형 피르스콜라 프로그램

비취업이거나 육아휴직중인 부모,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모,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한 개방형 피르스콜라는 시간단위로 제공된다. 다른 유형의 보육보다 비형식적인 특성이 강하며 부모나 가정보육모 등 양육자가 아이

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모와 가정보육모와 아이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양육기술과 지식, 정보를 공유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와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형 피르스쿨라는 해당 지역 부모들에게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내 아이들을 위한 식사는 물론 부모에게도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모자보호, 보건서비스 기구 등과 연계하여 부모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등, 부모참여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개방형 피르스쿨라는 프로그램 내용이 지자체마다 달라 지역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고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민가정이 많은 지역의 경우 스웨덴어 및 스웨덴 문화, 학교체계에 대한 소개가 강조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정책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없다. 많은 지역에서 가정보육시설의 교육적 기능의 보완 및 종일제 피르스쿨라의 대안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아동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진학할 때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학교 등과 협력한다.

다. 가정보육

가정보육은 대체로 공립 피르스쿨라의 입소를 기다리는 동안 이용되나, 일부 부모의 경우 소집단의 이웃 가족같은 친근한 분위기 때문에 자녀를 취학전까지 가정보육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가정보육에는 12세까지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보육도 포함되며, 10~12세보다는 6~9세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정보육의 경우 피르스쿨라와 같은 구체화된 프로그램의 제공 없이 자신의 자녀를 집에서 돌보듯 돌봄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룬다. 1980년대 이후 가정보육의 이용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시골 지역

의 경우 부모들이 가정보육을 취학전 보육으로 선택하게 되므로, 교사자격과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라. 유아학급

만6세가 되면 초등학교 안에 개설된 무상교육 유아학급(preschool class, förskoleklass)에 다닐수 있는데, 유아학급은 의무교육은 아니나 국정 의무교육 교육과정(Lpfö 94)을 따라야하며 보육이 아닌, 학교 교육의 영역에 포함된다. 피르스콜라와 초등학교의 전이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8년 이후 지자체는 모든 6세 아동에게 무상으로 최소한 연간 525시간의 하루 3시간의 반일제 유아학급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6세 아동(99%)이 다니고 있다. 유아학급의 교육목표는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자극하고 학교교육의 기초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준비과정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아동은 유아학급의 반일제 무상교육과 전후 보육을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가 생애초기 유아교육 및 보육의 교육적 기능을 더욱 강조하여 2009-2011 3개년 계획으로 총 6억 크로나의 예산(한화 1,023억원)을 들여 취학전 기관의 학습준비도와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였다(『The Boost for Preschool』 법안,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9).

2. 2011년 학교법 개정을 통한 교육개혁

상급학교와의 연계 및 언어·수·과학 중심의 교육력 강화

스웨덴 정부는 2011년 New Education Act(2011)를 통한 교육개혁(School Reform) 작업을 통해, PISA와 같은 국제연구에서 스웨덴 아동의 지적 역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 대대적인 정책적 대응을 시도한다. 스웨덴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논쟁으로 등장함에 따라 교육의 질적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2011년 학교법 개정을 통해 preschool-kindergarten-compulsory education, 그리고 out-of-school care와 adult education 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가 지식, 선택의 자유, 안전을 주요 어젠다로 하여 일관된 연계성을 가지고 발전하도록 하였다.

즉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취학전 교육과정에서 언어, 의사소통, 과학·기술 영역을 보강하였으며, 의무교육 3-6·9학년 시점에 전국 학생성취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다. 새로운 등급 체계 도입을 통해, 6학년부터 등급(A-F) 성적을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과정의 내용면에서 2010년 하반기부터 취학전 보육·교육 발전법안을 통해 ECEC 기관에서 언어 및 수·과학의 교과교육과 이에 대한 아동의 해당 교과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교육력 강화의 구체적 커리큘럼으로 변화를 시도, 지원을 늘려왔다. 의무교육은 7세부터 시작이나, 앞서 논의한대로 사실상 6세 Kindergarten (Preschool Class)을 거의 모든 아동이 다남에 따라, 사실상 의무교육 10년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전히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 인지 교육, 놀이중심,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고, 모든 아동 대상 공평한 접근성을 갖춘 보편 교육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교육력 강화와 서비스 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ECEC 정책적 변화와 노력의 일환으로, 언어와 수·과학의 교과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ECEC 질 제고를 위한 영유아교사 정책¹⁴⁾

1. 교사 현황

가. 교사 유형 및 현황¹⁵⁾

스웨덴의 육아지원인력 즉 교사는 근무하는 ECEC 기관 유형에 따라 유아교사(förskollärare), 보조교사(child minder), 가정보육모(family child minder), 레크레이션 교사의 네 종류로 구분된다. 스웨덴 영유아 교사의 자격체계는 원장과 교사 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별도의 직급체계는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14) 최윤경·김은설·신동주·장혜진·박창현·홍성은(2015)의 「유아교육(ECEC) 교원 양성·자격 정비 및 재교육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를 참조 및 재구성함.

15) 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 (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보건복지가족부. <http://www.skolverket.se> 참조

1) 원장

피르스콜라의 원장은 일정한 자격심사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육 위원회에서 선출되거나, 본인의 신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피르스콜라 원장 또는 공무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유아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ECEC 관련 경력이 있으며 근무 기관에서 받은 추천서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친다. 유아교사들도 원장 선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원장은 행정적인 모든 일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로 주로 재정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지방분권화로 원장의 재량권이 커졌다. 원감이라는 직책은 없으며, 198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기 관여하는 4단계의 통합된 원장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표 21 참조)(김은설 외, 2009).

2) 교사

첫째, 유아교사는 대학 3년 반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는데, 9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며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양성과정의 교과 내용은 아동발달, 가족사회학, 교수방법 등으로 보조교사 양성과정보다 이론 비중이 높으며, 현장실습 기간이 12주로 실습이 강조되고 있다. 유아교사는 피르스콜라와 유아학급 등의 영유아를 위한 기관 뿐 아니라 학령기 아동을 위한 레저타임센터(여가활동센터)에서도 일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다(김은설 외, 2009).

〈표 13〉 스웨덴 ECEC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기준

교사 유형	자격기준	양 성 과 정	근 무 지
유아교사 (Preschool teacher)	학사학위	- 3년 6개월(140주) 대학교육 이수 (실습 12주 포함)	- 피르스콜라 - 개방형 피르스콜라 - 유아학급 - 레저타임센터
보조교사 (Nursery nurses)	후기 중등교육 (고졸)	- 고등학교에서 3년간 아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이수(실습 15주 포함) - 또는 성인교육기관에서 1년간 보조교사 과정 이수	- 피르스콜라 - 개방형 피르스콜라 - 유아학급/가정보육 - 취학전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기관 - 주교사를 돕는 보조 역할 수행
가정보육모 (Family day carers)	형식적 교육 자격요건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90-100시간 훈련과정 이수	- 가정보육 - 유아학급/가정보육 - 공립 가정보육사: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급여 받음.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음 - 사립 가정보육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가를 얻고 관리·감독을 받거나 공적 규제를 받지 않음. 개인적으로 운영
레크레이션 교사 /여가활동 교사 (Free-time pedagogues)	학사학위	- 3년 6개월(140주) 대학교육 이수(실습 12주 포함)	- 레저타임센터 - 피르스콜라(유아교사와 함께)

자료: 한유미 외(2005), Skolverket(2015), 최윤경 외(2015) 재인용.

둘째, 보조교사는 고등학교(집내지움)에서 3년간의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공통과목 750학점, 선택과목 300학점, 전공과목 1,450학점 등 총 2,500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참고로, 스웨덴의 고등학교에는 17개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데, 대학진학을 위한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은 취업을 위한 것이며, 이중 하나가 '아동과 레크레이션' 과정이다. 통상 2, 3학년에 전공과목을 이수하면서 전공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동과 레크레이

선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유아학교,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의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교과목은 ECEC 기관에 대한 지식, 아동보육과 레저, 전문직으로서의 보육, 사회현상으로서의 레저타임, 발달과 사회화, 전문직과 평생학습, 유아기와 레저타임(여가활동) 교육 등의 전공과목과 그 외 선택과목이 제공되며, 별도 15주간의 현장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다(김은설 외, 2009).

보조교사를 양성하는 또 다른 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성인교육기관(Komvux)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보육교사교육원과 유사한 1년 교육훈련기관이다. 이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에 요구되는 1개의 필수과목 외에 4개의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2개의 선택과목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총 800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자체에서 교사를 선발할 때 대학교육을 받은 유아교사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으므로 보조교사들은 유아교사 자격을 갖추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이는 유아교사 양성학과와 입학경쟁률을 높여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교사 전문자격제도의 도입 이후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유아교사와는 달리 보조교사는 취학전 영유아를 위한 육아지원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으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레저타임센터에서는 근무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의 역할이 주교사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한되어있다. 그러나 상급과정의 교육 이수를 통한 보조교사의 유아교사 자격 취득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셋째, 가정보육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고 급여를 받는 대신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 ‘공립 가정보육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가를 얻고 관리·감독이나 공적 규제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사립 가정보육모’로 나누어져 있다. 가정보육사는 유아교사나 보조교사와 같이

공식적인 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90~100시간 정도의 훈련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다. 가정보육모의 경우 자격을 갖춘 비율이 1990년 41%에 비해 2003년 71%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주로 이동보육과 관련된 훈련 과정이나 보조교사 교육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보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조교사 교육과정이 권고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특별한 지침이나 의무사항은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90~100시간의 훈련 이외에 연간 30시간의 연수를 받도록 권유되고 있으나, 가정보육사를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공식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넷째, 레크레이션 교사는 유아교사와 마찬가지로 3년 반의 대학교육을 받은 경우로서 주로 방과후보육을 담당하는 레저타임센터(여기활동센터)에서 6~12세에 해당하는 학령기 아동의 육아지원을 담당한다. 레크레이션 교사 양성 교과목은 교수법, 발달심리학, 가족사회학 및 창의적 활동 등을 포함하여, 양성체계와 이수과목이 유아교사 양성과정과 유사하다.

나. 교사 양성 현황

스웨덴의 ECEC 교직원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는데, 1990년대 이후 피르스콜라의 대졸 교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기준 피르스콜라에서 대졸 교사는 50%, 보조교사는 42%였다. 피르스콜라에 근무하는 유아교사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다.

취학전 교육기관 종일제 피르스콜라에 근무하는 교사(preschool teacher) 88,900명 중 95%가 유아 관련 교육 훈련을 받은 것으로, 그러나 정식 교사자격을 갖춘 종일제 유아교사(preschool teacher)는 2011년 기준 54%에 불과하였다. 취학 1년 전에 다닐 수 있는 유아학급(pre-school class)

교사 중 자격 교사는 83%로, 이 중 유아교사 자격자 57%, 여가활동교사 7%, 그리고 기타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19%로 구성되어 있다(Skolverket, 2013: 13, 16). 3-5세 교사의 약 50%가 대학(university) 교육을 받았으며, 다른 50%는 고등교육기관(gymnasium)에서 교육을 받은 보육모(nursery-nurse)로 이루어져 있다(I. P. Samuelsson Samuelsson, 2013).

여가활동센터(leisure-time centres)에서 근무하는 여가활동교사(Free-time pedagogues) 교직원 1명당 학생수는 2011년 기준 12.3명으로 점차 여가센터가 줄어들어 따라 유아학급이나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가활동교사가 증가하고 있다(Skolverket, 2013). 가정보육사(Family day Carers)들은 2011년 기준 72%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8%는 사립 가정보육사이다. 가정보육사 중 72%만이 훈련을 받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종사자가 4명 중 한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가정보육사 10명 중 4명은 가장 일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인 아동보육 훈련(child care training)을 이수했고 약 27%는 다른 훈련 과정을 밟았으며, 5%만이 대학 수준의 교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Skolverket, 2013).

〈표 14〉 스웨덴 ECEC 교사 현황

구분	공립		사립		합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총 교원 수	78,744	2,611	18,750	1,146	101,251
유치원장	2,660	348	2,570	189	5,767
교직원	70,800	2,238	17,623	1,015	91,675
유아교사 교육을 받은 자	37,543	995	6,549	244	45,331 (49.4%)
여가활동 교사 교육을 받은 자	467	36	165	15	682 (0.7%)
교사교육을 받은 자	2,076	104	763	60	3,003 (3.3%)
가정보육사(child minder)	26,343	655	6,893	311	34,202 (37.3%)
레크레이션 지도자 교육을 받은 자	79	12	79	15	184 (0.2%)
그 외 훈련을 받은 자	1,113	62	1,200	76	2,451 (2.7%)
훈련 받지 않은 자	3,179	374	1,974	295	5,822 (6.4%)
그 외 보조교사 및 보조인력	3,179	185	735	91	4,190

자료: Skolverket, 2013

스웨덴에서는 훈련된 교사를 공급하는 것이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필수 요인이라는 입장에서 정부가 교사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기존 교사들의 성별 및 연령 구성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가 들어 있는 교사인명록(NAE teacher directory)을 토대로 교육부는 매년 교사양성 대학에서 배출해야 할 예비 교사의 수를 정한다. 2011년 7월에는 학교교사와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등록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NAE)이 국립고등교육원(National Agency for Higher Education)을 대체하여 교직자격 수여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다. 2012년부터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교원은 반드시 교사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해당 과목과 학년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을 인증받도록 하였다.

스웨덴의 교사수는 2004년 75,332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3년 101,2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 교직원의 수가 월등히 많

다. ECEC 영역에 보다 남성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남성은 피르스콜라에 3%, 레저타임센터에 14%에 불과하다(Sverigies officiella statistik, 2015).

2. 교사 양성과정

가. 교사 양성과정의 변화

스웨덴의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은 유럽연합 볼로냐 협약에 의해, 유럽 국가 전반적으로 표준화 된 교사 양성의 틀을 적용한다. 스웨덴의 경우 대학교육협의회(또는 고등교육기관 협의회)에서 3년반에 해당하는 취학 전 ECEC 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표준화 된 기준을 갖는데, 3년반 양성과정 이수 후 무시험검정으로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체계이다. 과거에 실시하던 약 1년간의 교사인턴 제도는 사라지고, 대신 첫 해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교사 권리의 개념 차원에서 다양한 현직교육과 멘토링의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보조교사도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일원화 된 정식 양성과정이나 자격체계는 갖고 있지 않다.

스웨덴 취학전 이동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교사 중 크게 유아교사, 보조교사, 가정교육모의 세 종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앞서 논의한대로, 첫째, 유아교사(förskollärare)는 최소 3년반에 해당하는 대학교육과정 210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피르스콜라, 개방형 피르스콜라, 유아학급, 학령기 보육시설인 레저타임센터에서 일할 수 있다. 둘째, 보조교사(barnskötare)는 고등학교에서 아동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전공하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성인교육기관에서 1년간 보조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

로, 최소 1년반에 해당하는 대학교육과정 9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취학 전 보육시설에서만 일할 수 있다. 셋째, 가정보육모(dagbarnvaårdare)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정시간의 훈련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자를 일컫는다. 전반적으로 기관유형별 교사의 비율은 피르스콜라 교사가 약70%, 취학아동대상 레저타임센터 약20%, 개방형 피르스콜라 1% 미만, 가정보육 약 8% 로 나타나, 취학전 기관에서는 종일제 피르스콜라 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15〉 ECEC 교사 양성과정 강화

변경 전		변경 후	
교사 유형	양성 과정	4개 직업학위	양성 과정
유아교사	3년 6개월(140주)	취학전 교사	210학점 이상
보조교사	고졸 전공자 또는 교육기관에서 보조교사과정 이수		90학점 이상
가정보육모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에서 90~100시간 과정이수	가정보육모	종전과 동일
레크리에이션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3년 6개월(140주)	방과후돌봄 교사	180학점 이상
		초등교육 교사	240학점 이상
		교과교육 교사	270 또는 300학점
		직업교육 교사	90학점 이상

자료: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9)

나. 교사 양성기관 및 교육과정¹⁶⁾

1) Förskola 영유아교사 양성과정 및 교육과정

스웨덴에서 피르스콜라 교사(preschool teacher)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preschool education을 전공해야 한다. 스웨덴의 고등교육 학제는 크

16) 최윤경·김은설·신동주·정혜진·박창현·홍성은(2015)의 「유아교육(ECEC) 교원 양성·자격 정비 및 재교육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

계 학사, 석사, 박사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고, 학사과정은 다시 일반학위과정 (general qualification), 미술/실용/공연 예술학위과정 (fine, applied and performing art qualification), 그리고 전문학위과정 (professional qualification)으로 나뉜다. Preschool education은 이 중 전문학위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5년 현재 20개교에서 preschool education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과대학 9곳, 종합대학 11곳이다.¹⁷⁾

스웨덴의 경우 대학교육도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대다수의 대학은 취학 전 ECEC 기관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관할 하에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Uppsala, Lund, Göteborg, Stockholm, Linköping 대학이 있다.

〈표 16〉 2015년 영유아교사 양성과정(Preschool education)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

기관유형	기관명
Högskolan (9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ögskolan Dalarna - Högskolan i Borås - Högskolan i Gävle - Högskolan i Halmstad - Högskolan Kristianstad - Högskolan Väst - Malmö högskola - Mälardalens högskola - Södertörns högskola
Universitet (11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öteborgs universitet - Jönköping universitet - Karlstads universitet - Linköpings universitet - Linnéuniversitetet - Luleå tekniska universitet - Mittuniversitetet - Stockholms universitet - Umeå universitet - Uppsala universitet - Örebro universitet

출처: <http://studera.nu/att-valja-utbildning/aranutbildningar/forskollarare/>, 최윤경 외(2015) 재인용.

17) Swedish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2015), *Study levels and degrees*. Retrieved from <http://studera.nu/startpage/higher-education-studies/higher-education-in-sweden/study-levels-and-degrees>

2) 영유아교사 양성과정 및 학위취득 요건

전문학위과정(professional qualification)은 세부 전공에 따라 학위취득 요건과 기간이 다른데, 크게 정량적·정성적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정량적 기준으로 영유아교사 양성(Preschool education)의 경우 210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식 학제로 환산했을 경우 140여 학점에 해당하여 취득을 완료하기 까지 7학기, 약 3년 반이 소요된다. 스웨덴 고등교육 기구 (Universitets Kanslers Ämbetet: Swedish Higher Education Authority)에서는 210학점 중 120학점은 영유아 교육 분야 (early childhood education)를, 60학점은 교육학 분야 (educational science), 그리고 30학점은 현장실습관련 분야 (clinical education)를 취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 요건을 고려하여 개별 학교에서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예로 2014년 스톡홀름 대학의 영유아교사 양성학과 교육과정(preschool education)을 제시하였다(표 17). 영유아교육전공 : 교육학일반 : 현장실습 : 자유선택(독립연구)의 비율이 8:4:2: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육학적 교과에 기초하고 있다.

〈표 17〉 2014년 스톡홀름대학 ECEC 교사 양성과정(Preschool education)

구분	교과명 및 학점
영유아 교육 (120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chool 업무: 탐구, 놀이, 보육 (7.5학점) - 교육환경 (8.5학점) - 아동훈육, ethics meetings and life issues in preschool (7.5학점) - 영유아교육: 심미 및 윤리 (7.5학점) - 영유아교육: 수학 (12학점) - 영유아교육: 과학, 기술, 지속가능한 발달 (12학점) - 영유아교육: 언어 및 의사소통 (22.5학점) - 개별독립과제 (15학점) - Play in pre-meeting and meaning (8.5학점)

구분	교과명 및 학점
교육학 (60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 및 수사학 (3,5학점) - Training history and place in society (5학점) - 학습 및 인간발달 이론 (7,5학점) - 특수교육 (7,5학점) - Preschool에서 사회관계 (7,5학점) - 발달평가 (4학점) - Preschool에서 윤리적/법적 이슈 (2,5학점) - 지식, 과학, 연구방법론 (7,5학점) - 교과이론 및 pedagogical documentation (7,5학점) - 교과이론, pedagogical documentation 및 평가 (7,5학점)
현장실습 (30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I: Preschool 교사 교육 (3학점) - 현장실습 II: Preschool 교사 교육 (6학점) - 현장실습 III: Preschool 교사 교육 (6학점) - 현장실습 IV: Preschool 교사 교육 (7,5학점) - 현장실습 V: Preschool 교사 교육 (7,5학점)
자유선택(15학점)	- Preschool 교육과 관련한 고급과정 15학점을 자유롭게 선택 수강
총 계	210학점 + 자유선택

자료: Stockholm University (2015), *Programm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10 hp*. Retrieved from <https://sisu.it.su.se/info/index/LF%C3%96RY/en>

상기와 같은 정량적 요건 이외에도 스웨덴 고등교육 기구는 영유아교원 양성과정(Early childhood education)을 통해 독립적인 preschool teacher가 되기 위해 성취해야 하는 정성적 요건들을 지식/이해, 기술/능력, 판단/접근법, 그리고 독립연구(논문)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표 18) 영유아교사 학위취득을 위한 정성적 요건

분야	요건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육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실무현장에서 요구되는 최근 연구 동향을 안다. - 현장실무에 필요한 영유아 교수법 및 관련 기술을 습득한다. - 아동의 의사소통 및 언어에 관한 심도있는 지식을 축적한다. - 아동의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과정에 관한 지식을 축적한다. - 양적/질적 연구 방법, 연구결과와 실제적용간의 관련성,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실무현장에 갖는 중요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한다. - 아동발달, 학습욕구 및 환경에 관한 지식을 축적한다. - 실제적, 심미적 학습 과정에 관한 지식을 축적한다. - 또래관계, 갈등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축적한다. - 학교교육체계, 관련정책동향, 교수이론, 다양한 교육적 관점들에 관한 지식을 축적한다.

분야	요건
기술/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놀이 및 창의적 활동을 포함하는 아동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 독립적이고 비평적으로 본인 및 타인의 경험 그리고 관련 연구를 활용하고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통해 본인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분야의 지식축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별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아동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독립적으로, 혹은 협업을 통해 개별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수법 및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특수한 교육요구를 식별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아동의 전인적 학습 및 발달을 관찰, 기록하고 분석하며 이를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그들과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와 같은 preschool의 가치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차별 및 기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이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교육 활동에 있어 평등에 기반한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아동의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듣기, 말하기, 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을 배양한다. - 안전하고 비평적으로 디지털 도구들을 교육 활동에 사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교육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판단/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인식을 높이고 공감능력을 배양한다. - 아동과 그 보호자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접근법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교육현장에서 과학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측면을 바탕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인권과 지속가능한 발달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둔다. - 추가 지식습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독립연구(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취득 과정에서 15학점에 해당하는 영유아교육분야와 관련한 개별프로젝트(학위논문)를 수행한다

자료: Swedish Higher Education Authority (2015), *Ansökan om tillstånd för lärarexamen*, Retrieved from <http://www.uka.se/utbildningskvalitet/tillstandforlararexamen,4,782a298813a88dd0dad800011489.html>

교과목 학점 기준 외에, 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지향하는 교과 개요와 바람직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육적인 요건을 지식, 기술, 접근법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ECEC 교사 양성과정의 목표와 방향성을 갖게한다.

3. 교사 자격 체계

가. 영유아교사 자격 체계

Preschool education으로 전문학위(professional qualification)를 취득하면 교사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전문학위를 취득하고도 임용 후 1년간의 수련기간(introduction period)을 거친 후에 정식 교사자격이 부여되었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 수련기간 없이 바로 교사자격이 부여된다(<http://www.skolverket.se/kompetens-och-fortbildning/lararlegitimation>).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입교사에게 수련기간을 권리로써 보장하여 아동을 위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수련기간 중 신입교사는 수행평가(performance review)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리더십, 아동 (다루기), 동료교사 및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수련기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표 19>에 제시되어있다.¹⁸⁾ 초임교사의 지원을 위해 멘토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역할, 시행기간과 시작시점, 교수법 개발 위주의 멘토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표 19> 수련기간 세부사항

구분	세부사항
멘토지원	수련기간 중 신입교사는 그들의 업무숙달을 지원할 멘토를 요구할 수 있다. 멘토는 반드시 멘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정규직 교사이어야 한다.
기간	수련기간은 풀타임 기준으로 최소 1년간 시행해야 한다. 다만 풀타임으로 고용되지 않았거나 수련기간 중 공백이 있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은 스스로 시행한다.

18)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Förskolepersonal: Introduktionsperiod*. Retrieved from http://www.skolverket.se/kompetens-och-fortbildning/forskolepersonal/introduktionsperiod-1_237093

구분	세부사항
시행	수련기간을 계획하고 멘토를 지정하는 책임은 기관장이 진다. 수련기간에 대한 충실한 계획수립을 통해, 신입교사가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
개시	수련기간은 고용 즉시 시작하도록 한다. 수련기간 시행은 교육활동내에서 이루어지며, 신입 preschool 교사의 능력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멘토의 역할	멘토는 최대한 신입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멘토는 신입교사에게 개별적 지원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교수법 개발	수련기간 중에도 신입교사는 모든 평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수련기간 중 교수법을 체계적으로 계획, 모니터링, 평가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련기간 시행의 내용이나 방식은 신입교사의 사전지식이나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Förskolepersonal: Introduktionsperiod*, Retrieved from http://www.skolverket.se/kompetens-och-fortbildning/forskoepersonal/introduktionsperiod-1_237093.

Preschool 교사는 크게 ‘기관장’과 ‘평교사’로 나눌 수 있다. 평교사 내에서는 특별한 위계나 연차/호봉과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¹⁹⁾ Preschool 기관장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기관장 인력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지원요건을 사전에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서 현직교사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경력교사들이 지원 하나, 위원회 심사방식인 만큼 ‘일정 수준’이라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자격요건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나. 교사 자격제도의 전면 도입

2013년 12월 1일부로, 모든 정규직 학교교사와 유아교육 교사(ECEC 교원)들의 전문교사자격증(professional certification) 취득이 의무화 되었다.

19) 초등학교 이후로는 first teacher와 lektor라고 하는 중간급에 해당하는 개념이 최근 생김.

스웨덴 교육정책의 큰 이정표로서, 자격증의 의무화를 통해 교사직의 지위를 높이고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1977년 이래 교사교육은 고등기관 교육과정의 일부로 되어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는데(표 17 참조), 2001년에는 통합교육학위가 마련되어 유아교육교사부터 고등교육교사까지 공통적으로 기본 교사자질을 갖춤과 동시에 분야/과목/연령대의 세부전공을 하여 전문성을 갖게 하였다. 이 통합교육과정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5년의 풀타임 프로그램으로 전공 분야와 대상 연령대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교사자격취득 학위 프로그램의 이러한 단계적 구조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근거한 것으로, 학위 시스템구조 또한 이에 따라 개편되었다. 교사교육 과정의 첫째 분야는 분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최소 1.5년에 해당하는 일반교육분야 수업을 듣는다. 학생들의 학습발달, 특수교육, 사회성교육, 과목통합(간학문적) 교육 등 주요 주제를 다룬다. 두 번째 분야는 전공관련 교과로서 최소 1년이 소요되며, 세 번째 분야로 전공분야를 보완하는 과목을 최소 1학기동안 수강한다. 교사자격증을 위해 학생들은 반 학기 분량에 상응하는 개인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한다. 교사자격은 두 개의 레벨로 나뉘는데, 진로와 전공에 따라 첫째 레벨과 둘째 레벨로 구분된다. 첫째 레벨의 교사자격증은 3년에서 3.5년이 소요되며 피르스콜라(유치원), 유아학급(preschool class), 여가활동강사,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모국어프로그램 교사들이 해당된다. 둘째 레벨의 교사자격증은 최소 4년이 소요되며 의무교육학교의 고학년과 고등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해당된다. 모든 교사교육프로그램은 특수교육에 대한 교사 자질 향상을 중시하며, 분야와 무관하게 모든 교사들이 일반교육분

야에서 반드시 특수교육을 교육받도록 한다.

2011년부터는 기존의 통합교사학위가 네 개의 새로운 전문 학위로 대체되어, 유아교육교사(ECEC 교원), 초등교육교사, 과목교사, 그리고 직업교육교사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목표, 일반지식과 교수법의 습득에 중점으로 둔다. 영유아교사 자격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은 210학점으로, 어린 아이들의 학습과 보육 필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적 기반과 교수법 습득에 초점을 두며, 이는 읽기와 기본 수리능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초등교육교사 학위는 세 개의 전문분야로 나뉘는데, 유치원과 1-3학년을 가르치는 경우, 24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폭넓은 지식 습득에 목표로 하여 교사로 하여금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기반을 준비시킨다. 또한 읽기와 쓰기의 발달과 아동의 수학 학습에 대한 이해도 양성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다.

앞서 살펴본대로 2011년 7월에는 학교 교사와 유아교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등록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NAE)이 국립고등교육원(National Agency for Higher Education)을 대체하여 교직자격수여 및 관리기관이 되었다. 2012년부터는 교사자격을 위해 교사는 반드시 등록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과목과 학년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을 인증받도록 하였다. 교사등록 후에 교사는 학년 선택권과 함께 신입교사의 멘토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등록된 교사만이 정규직으로 고용될 자격이 주어진다. 교사양성 및 발전을 위한 이러한 구조의 도입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인증 받은 자격 없이 가르치는 교사의 비율이 높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교사교육프로그램에 속한 학생의 수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분야에서 취약한 점과 국제

화 수준이 평균 이하인 점 등 전반적인 교사교육프로그램의 부실함이 다수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바 있었다.

국가 교육 시스템에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 관련 대학 학위증이 있어야 하고, 스웨덴어 구사능력, 그리고 학교 시스템 관련 규정과 교육목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유아교육교사들, 여가활동교사, 봉급교사 및 학교장들은 지자체에서 고용한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와 교사노동조합이 협상하여 봉급과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외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독립학교에 소속된 교사들은 봉급과 근로조건을 관련주체측과 교사노동조합의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사학위증이 있는) 교사들은 정규직에 채용되기 전 12개월의 수습채용 기간을 거친다. 수습의 목적은 신입교사들에게 1년간의 적응기간을 갖고 경험이 많은 멘토 교사의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자격요건을 불충족하는 교사는 임시채용만 가능하나 매년 연장할 수 있다.

4. 교사 연수²⁰⁾

교원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를 유지 혹은 갱신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연수(현직교육,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영유아교사(preschool teacher)의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Förskolepersonal: Fortbildning för förskolepersonal*. Retrieved from <http://www.skolverket.se/kompetens-och-fortbildning/forskolepersonal>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6주 간의 단기 코스부터 1년 또는 그 이상의 교육과정이 있다. 공식적인 연수과정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연수의 기회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특수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동, 다문화교육, 교육행정 등에 관해서 연수가 이루어지고, 피르스콜라의 원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교사연수 예산을 사용하여 교사들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한다. 교사가 연수를 받는 것이 공식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연수를 받지 않으면 봉급 책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은설 외, 2009).

대체로 지정된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고등교육은 학비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재교육 참여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만 수업에 필요한 부자재들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인이 지불해야 하나, 이 역시 대체로 본인의 소속 기관에서 환급해 주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속교육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교육에 참가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산입되고 차후 임금협상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균등히 높은 교사의 교육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능력개발이 중요하다. 교사능력개발을 통해 국가적, 지역적 목표와 학교 학습활동들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연수교육은 주로 study days, 저녁 혹은 학생 휴교일에 이루어진다. 능력개발시간을 통한 자격기준 획득은 교사 개인의 급여 등급결정에 반영된다. 교육주체 측에서 교사교직원을 위한 능력개발 연수기회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수교육은 다양한 제공자 가운데 계약하여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를 위한 자금을 책정하고 그 범위를 결정한다. 정부도 국립교육원에 추가 자금을 책정하

여 웹 지원 자료나 컨퍼런스 등을 통하여 지자체와 독립학교의 교사능력 개발교육을 돕는다.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교직원의 업무능력발달이며 국립교육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장 교육과 교사 전문교육의 책임을 갖는다. ‘A boost for teachers’ 캠페인을 통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1/4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현직교육을 더 받았으며, 30,000명의 자격충족 교사들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기회가 주어졌다. 재교육기간 동안 교사들은 봉급의 80%를 지급받았다.

2015년 현재 스웨덴의 영유아교사(preschool teacher)에게 제공되는 보수교육은 크게 ①수습기간, ②preschool 일반 보수교육, 동료간 학습 기반의 단일교과목 연수로 ③언어영역 보수교육, ④수리영역 보수교육, 그리고 ⑤기관장 준비 과정의 5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²¹⁾

가. 수습기간

신임 유아교사는 수습기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수습기간의 목표는 새로운 직무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표 19 참조).

나. 피르스콜라 일반 연수

피르스콜라 현직교육, 즉 연수 과목들은 교사들이 교육 커리큘럼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 능력을 배양하고 신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피르스콜라 연수에 해당하는 4개의 교육분야(다문화/다언어, 과학/기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 기관운영 및 평가)는 유아교사, 보

21) 스웨덴 피르스콜라 교직원 보수교육 안내 홈페이지(최윤경 외, 2015 재인용)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Förskolepersonal: Fortbildning för förskolepersonal*. Retrieved from <http://www.skolverket.se/kompetens-och-fortbildning/forskolepersonal>

조교사 및 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모두 교육부 지원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1) 다문화/다언어사용

뢰르스콜라 보수교육에는 다언어 사용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뢰르스콜라 교직원의 다언어 사용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 역량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기반한다. 이 과정은 다언어사용 및 다문화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 참가자는 다언어 사용 아동을 지원하는 방법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고, 또한 아동의 모국어와 스웨덴어 모두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교육과정의 중심 테마는 다문화 접근에 관한 것이며, 이는 뢰르스콜라에서 모든 언어와 문화적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2) 과학/기술

과학/기술 영역은 뢰르스콜라 커리큘럼이 개정된 2010년부터 강조되었던 영역이다. 2012년 스웨덴 교육부의 자체 평가 및 스웨덴 교육 사찰단의 보고서는 이 영역에서 교직원들의 역량 향상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 가을부터 과학/기술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는 뢰르스콜라 교직원들이 과학/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지식을 쌓고, 아동의 호기심과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3)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피르스콜라는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돌볼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아동의 도전의식을 고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수에서는 이와 관련한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교육과정은 아동의 언어, 의사소통 및 수리능력 발달을 위한 관련 지식을 쌓고 교수법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이 과목은 교육 활동을 선택하고, 문서화하고, 또한 분석하는 내용들을 포함하며, 이러한 사전 작업들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활동을 고안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4) 양질의 기관 운영 및 평가

피르스콜라는 아동의 발달 및 학습 기회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피르스콜라 기관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교사 연수에서는 전반적인 피르스콜라 환경이 평가와 질적 환경 개선 노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수업을 제공한다. 수업에서는 피르스콜라 커리큘럼과 관련한 유아교사와 기관장의 책임에 관한 부분을 다룬다. 또한, 아동의 발달과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문서화의 중요성을 비평적으로 숙고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다. 언어영역 보수교육

언어영역 보수교육은 2015년에서 2018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2015-2016년도의 언어영역 보수교육은 다양한 유형의 교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피르스콜라 유아교사 및 유아

학급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 언어영역 보수교육은 동료간 학습을 기반으로 한 언어, 독해, 그리고 작문 교수법에 관한 교육을 일컫는다. 언어영역 보수교육의 목표는 해당영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아동의 독해 및 작문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언어영역 보수교육을 계획하는 기관의 기관장은 정부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언어영역 보수교육은 동료간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로 정부기금을 지원받게 될 경우 이는 동료간 학습에 참가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관리자에 대한 비용을 그 용도로 한다. 하지만 정부 기금은 현재 피르스콜라에는 지원되고 있지 않다. 피르스콜라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재는 교육포탈에 2016년 가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라. 수리영역 보수교육

수리영역 보수교육에서는 피르스콜라 및 유아학급의 모든 교직원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교재를 제공한다. 언어영역 보수교육과 마찬가지로 수리영역 교재를 활용하여 동료간 학습을 통해 교육목표를 성취하는 방식을 취한다. 수학 보수교육은 해당 과목의 담당교사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 실시되고 있는 단일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보수교육 중 가장 큰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

수리영역 보수교육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아동의 성취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각 기관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교사의 평생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육 후의 지원으로, 동료간 학습을 이끈 관리자는 교육을 받은 2년여 후에, 봄/가을 각 2일간에 해당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세미나를 통해 관리자들은 그 동안의 경험과 진전사항들을 공유하게 된다.

관련 통계에서는 수리영역 보수교육이 참가자들에게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을 통해 수학 보수교육을 받은 교사 중 75%가 첫 해를 넘기고도 동료간 학습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현장을 방문해서 이러한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폈으며, 교사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배운 점들을 문서화하여 홈페이지에서 공유하고 있다.

연수교재는 학습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교재는 모듈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질문, 영상, 토론, 예시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듈은 교수법과 교육계획서에 관한 것으로 시작하며, 교재는 수학 학습에 관한 연구논문들과 스웨덴 아동/학생들의 국내/국제 성취 평가의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모듈과 동료간 학습은 수리영역 보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0) 수리영역 연수 참여 교사 수

연도	기관장	교사	수학 보조교사
2015/2016	230	8,987	590
2014/2015	270	13,500	750
2013/2014	280	12,800	710

주: 피르스콜라에 국한되지않은, 모든 교육기관 교사 연수 참가자 수

마. 운영자 과정

운영자 과정에 참가하는 인원은 대학에서 7.5학점(한국식 학제로는 5학점)에 해당하는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운영자로서의 시각에 대해 학습하게 되며, 이를 통해 피르스콜라 운영/개발에 공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참가자들은 교육 이후에 본인이 직접 피르스콜라 운영/개발에 참여하고, 또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동료들에게 전수할 기회를

갖게 된다. 운영자 과정 교육은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단, 운영자 과정 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피르스콜라 교직원들은 사전에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교육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운영자 과정 역시 동료간 학습을 지향하는 관계로 참가지원자가 많을 경우, 한 기관에서 두 명 이상 동시에 지원한 인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이 과정은 참가자들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평가 요소에는 세미나, 지필/구술 시험, 지필/구술 프리젠테이션, 수업참여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운영자 과정의 전반적 내용은 참가자들이 교육에 대해 운영자로서의 태도나 관점을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환경이나 기관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자 과정은 교육을 통해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참가자들의 역량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 ① 운영자 과정 교육을 통해 배운 개념을 정책(문건)과 연계할 수 있다.
- ② 운영자 정신(entrepreneurship)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 ③ 운영자로서의 접근이 교육기관의 실제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업무방식이나 학생, 동료,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④ 다양한 학습/교육 상황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분석과 설명을 운영자 과정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 ⑤ 운영자 과정 교육을 실제 교육 현장/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지식을 함양한다.
- ⑥ 다양한 개발/개선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학생과 교사의 운영자적인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⑦ 운영자 과정과 관련된 평가사항들을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한편, 1986년에 마련된 피르스콜라 원장 대상의 4단계 통합 연수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원장 연수 프로그램

단계	대상 및 내용	목적	비고
1단계 (원장 지원자들을 위한 모집훈련 프로그램)	원장의 다양한 리더십을 다루지만 국가의 교육목표에 초점을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원장의 증가로 새로운 원장을 찾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외부에서 채용 교육 배경이나 직업은 다르지만 덕망 있는 사람을 발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진행되며, 시행은 자자체간에 차이가 있음
2단계 (기초연수 프로그램)	새로 임명된 원장의 첫 1년 동안 업무를 도움	원장의 실제적 업무와 행정적 업무에 초점을 두고, 교육적 리더십도 소개함.	
3단계 (원장연수 국립 프로그램)	경력 1년 이상 2년 이하의 원장에게 30일 가량의 교육연수를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의 학교 시스템, 피르스콜라에 대한 국가적 목표, 사회와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에 대해 원장들의 이해와 지식을 높임. 	중앙정부가 국립교육원(NAE)을 통해 원장 훈련을 조직하는 책임을 맡고, 지원을 함
4단계 (심화연수 프로그램)	경력 2년 이상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함		대학에서 제공

자료: 김은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보건복지기초부.

5. 교사 근로환경 및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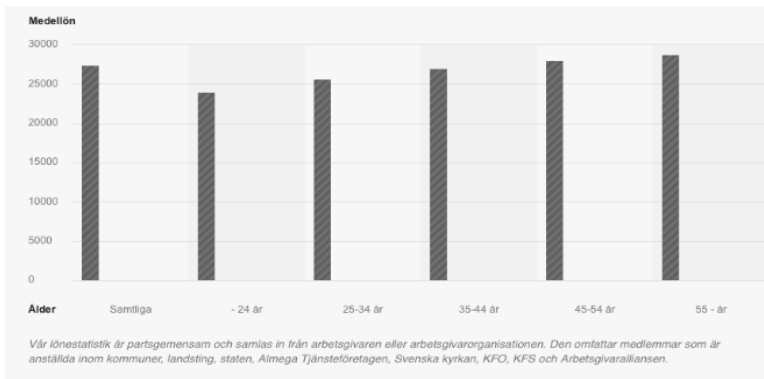
가. 근로시간 및 급여

유치원, 의무교육 학교와 고등교육 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40시간이다. 즉 스웨덴 영유아교사의 법적 근무 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연간 1,70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있다. 피르스콜라는 일반적인

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시간 이상 운영되는 종일제 기관이지만, 교대근무나 시간차 근무를 통해 8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지한다. 1일 근무 시간 중 교사에게 오전, 오후 각각 15분 간의 휴식시간과 30분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매년 근로시간이 1,767시간이며 그 중 1,360시간은 주요 업무, 407시간은 교사의 필요에 따라 행정이나 다른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쓸 수 있다. 풀타임 종사자의 경우 여기에 연간 104시간의 능력개발시간도 포함된다. 근로시간/일수는 194일로 나뉘어져 있거나 혹은 학생 등교일수에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다.

월 급여는 대학을 졸업한 피르스콜라 교사의 봉급이 보육시설 종사자 봉급보다 10%정도 높고 피르스콜라 교사와 여가활동 강사의 봉급은 초중학교 교사보다 16%정도 적은 수준으로 보고된다. 2011-2012년 기준, 스웨덴 공립학교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연봉은 최저 28,572유로에서 최고 36,413유로로 평균 32,426유로(한화 약 4천만원)이며, 원장의 경우에는 최저 34,286유로에서 최고 69,769유로로 평균 46,513유로(한화 약 5천9백만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Eurydice, 2014: 72, 73). 반면, 가정보육사(Childminders)는 20,150유로(한화 약 2천5백만원), 보조교사는 22,450유로(한화 약 2천8백만원)로 스웨덴의 공립학교 유아교사에 비해서는 낮은 봉급이지만, 프랑스의 가정보육사나 보육교사에 비해 40% 이상 높은 수준이다(The department for Education, UK, 2013).



자료: 급여통계사이트 (www.lonestatistik.se), 스웨덴 코로나 기준, 최윤경 외, 2015 재인용.

[그림 2] 연령대에 따른 평균 preschool 교사 임금

2015년 스웨덴 교사 급여통계에 의하면, 교사 전체 월 평균 임금은 27,500 크로나로 한화로 약 360만원 수준이다(1 SEK = 131.8 KRW). 20대 초임교사 급여는 약 300만원으로 교사 연령이 높아질수록, 즉 경력이 늘어날수록 월 급여가 다소 늘어나나 큰 차이는 아니다. 교사 임금은 매년 기관장과의 임금협상으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경력이 쌓이면 급여가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그림 2 참조),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연차 보다는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더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아교사와 레크리에이션 교사의 월급이 초등교사보다 낮은 편이다.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피르스쿨라와 레크리에이션 교사들은 초등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두 교사간의 급여와 교육기간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스웨덴 정부의 통합적 교사양성 정책과 교사의 전문성을 발달시키려는 노력으로 이러한 급여 차이를 완화시켜왔다.

나. 교사 복지 및 권리

과거에는 피르스콜라 취학전 교육과정은 따로 없었고 교사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국가수준의 취학전 교육과정(Lpfö 98)의 실행 이후, ECEC 교사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가정보육모를 포함해 모든 교사들이 지자체에 의해 임명되고 지자체로부터 임금을 받는 공무원 신분의 비교적 안정된 직종에 속한다. 다른 직종에 비해 영유아교사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근무조건이 양호하고 이직율이 낮은 편이며, 유아교사 평균 연령이 47.5세, 보조교사 42세로 경력교사의 비중이 높다.

스웨덴 영유아 기관에서는 아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리도 존중하고 있다. 교사는 교원노조에 가입해서 권익을 옹호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유아교사는 초등교사와 같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교원노조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및 세미나와 강의를 통해 유아교사들의 지속적인 직무발달을 돕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아교사들로 조직된 네트워크도 교사 상호간의 아이디어 교환 및 지속적인 직무발달에 도움을 제공한다. 유아교사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강의와 토론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직업안전 및 건강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는 1987년부터 피르스콜라 및 레저타임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안전 규정을 적용해 오고 있다(이진숙, 박은숙, 한유미, 오연주, 이영환, 2004, 서문희 외, 2010 재인용). 유아교사는 몸이 아픈 경우 대체 교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교사가 병가를 내면 둘째 날부터 급여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후부터 1년까지 급여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김은설 외, 2009).

교사지위에 따른 역할분담에서 유아교사가 보조교사에 비해 교육과정 구성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매일의 활동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상호간에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보인다. 원장과 교사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일례로 스웨덴 종일제 보육시설에는 원감의 역할이 없으며, 원장 부재 시에는 어떤 교사는 원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예테보리 사립 보육시설의 경우 원장없이 3명의 교사가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역할과 책임의 비중은 크다.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립 기관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공립 기관 교사보다 높다. 이는 사립 시설의 아동 수와 한 반의 크기가 작아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이 작고, 교육계획에서 교사의 자율권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상기한대로 근무여건에 있어서도 피르스콜라의 운영시간이 하루 11시간 이상의 종일제이지만, 교사들은 교대근무와 시간차 근무를 통해 주당 40시간, 1일 8시간 노동의 기준을 준수한다. 근무시간의 준수를 위해 시간제 교사와 대체교사의 활용이 요구된다.

다. 교사 배치 및 반 구성

OECD 교육 자료에 의하면(OECD Education at Glance, 2015, 329p), 스웨덴의 교사 대 아동 비율 평균은 영아 1:5 (ISCED 0.1 레벨), 유아 7:1 (ISCED 0.2 레벨)로 보고된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으며, 학급당 아동 수가 20명을 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종일제 피르스콜라에는 1~4개의 학급이 있으며, 한 학급은 평균 15명, 전체 정원 평균 42명 정도로 학급 수도 평균 2~3개의 비교적 소규모 시설 규모를 갖고 있다. 피르스콜라 학급당 아동수는 평균 17.4명

이고, 평균규모는 1~3세 아동의 경우 14.6명, 3~5세 19.7명, 혼합연령집단은 18.4명이다. 학급규모별로는 15명 이하의 학급 크기 이용률이 전체 피르스콜라의 36%, 16~20명 50%, 21명 이상 15%로 나타났다(Sverigies officiella statistik, 2005).

대개 학급당 3명의 교사가 팀을 이루어 일한다. 팀을 구성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2명의 유아교사와 1명의 보조교사이며, 3명이 모두 유아교사인 경우, 2명이 유아교사이고 1명이 보조교사인 경우, 2명이 보조교사이고 1명이 유아교사인 경우도 있다.

종일제 피르스콜라의 경우, 대개 학급당 3명의 교사가 팀티칭(team teaching)의 형태로 돌보고 가르치며, 시간제 교사 및 대체교사의 활용도가 높다. 첫째, 팀티칭제는 1968년 국가보육위원회의 권고 이래 지속되어온 질적 기준으로, 교사의 구성은 상황에 맞게 유아교사-보육교사-보조교사 간의 융통성 있는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사 구성방식을 통해 교사 개인의 개성과 능력이 다양하게 발휘되고, 서로 다른 인적 특성을 통해 교육활동과 인간관계를 보완하는 장점 외에, 한 교사가 활동을 주도하는 동안, 다른 교사가 다음 활동을 준비하고 보조하는 등의 프로그램의 구성과 역할분담, 활동간 전이과정과 교사의 근무여건의 질이 확보되는 주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둘째, 시간제 교사가 근무시간의 30~50%를 정교사와 함께 하며, 교사들의 병가 및 연수 등으로 인한 근무의 공백을 대체교사를 이용하여 보완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종일제 피르스콜라에서는 대개 1~2명의 보조교사와 특수교사가 비정규직의 형태로 근무하는게 보편적이다.

6세 대상 반일제 무상교육 유아학급의 도입으로 실제 대부분의 아동이 이용함에 따라, 피르스콜라가 말아야 할 아동의 연령범위가 1~6세에서 1~5세로 1년 축소되었으며, 유아학급 방과 전후에 가정보육 또는 레저타

임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유아학급은 독립된 학급으로 존재하기도 하나, 초등학교 1, 2학년과 함께 통합 학급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교실 내 3명의 교사 각각이 해당 연령의 아동에게 요구되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3명의 교사(예: 유아교사 1명, 레저타임교사 1명, 초등학교 교사 1명)가 배치되기 때문에 혼합연령의 통합 학급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선택은 교장의 재량으로 되어있다(한유미 외, 2005).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하는 개방형 피르스콜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아교사 1인과 보조교사 1인의 2명으로 이루어지며, 교사는 부모에게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고 사회적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방형 피르스콜라의 반 구성은 아동과 부모, 교사의 3자가 함께 하는 부모참여와 가족지원의 형태를 띤다. 개방형 피르스콜라의 경우 등록제가 아니고 정규적인 출석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아동의 수와 학급 구성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동 반 구성의 또 다른 특징은 연령별 집단 구성보다는 혼합연령 및 장애아 특수반과의 통합 학급 구성이 주를 이룬다는 점으로, 반 구성의 경우 과거 1970~80년대에 적용하던 형제그룹(sibling groups)의 개념에 의해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이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보다 다양한 기준(예:연령, 인종 등)에 의한 통합집단의 구성이 보여지고 있다. 개방적이고 비형식화된 놀이중심의 교육 활동으로 인해 상호교류와 또래간 관찰과 모방을 통한 학습의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 이러한 통합적 인적환경의 구성은 과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형제자매 관계의 경험이 적은 스웨덴 아동의 양육환경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과 연대성과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강조하는 스웨덴의 국가이념 및 교육 철학과도 연관된 것이다.

스웨덴 육아정책의 시사점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남녀간의 평등한 육아 참여, 그리고 공보육·교육 체계의 마련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국가로, 21세기 현 시점에도 여전히 영유아 교육·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및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아동기 전반에 걸쳐 포괄적 지원을 표방하는 스웨덴은 사민주의 모델의 육아지원 체계를 갖고 있다. 스웨덴의 영유아기 육아지원은 육아휴직 및 아동수당의 지급을 토대로 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금 지원이 서비스 지원에 비해 크지 않다. 육아지원 정책의 조합과 배치, 그리고 부모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권의 보장과 차등지원의 설계가 특징적이다.

2015년 현재 스웨덴의 육아정책의 전반적인 현황과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어떠한 정책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육아정책의 설계와 발전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은 일찍부터 부모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영유아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스웨덴은 과거 약 30여년간 공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국가전략을 제시하였고, 유아학교(포프스콜라)를 통해 영유아보육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스웨덴은 유아학교와 학령기 아동보육제도를 가족정책에서 교육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1996년 스웨덴은 교육개혁을 통해 유아학교에서 대학교육까지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였고, 지식강국의 기초를 다졌다(문무경, 2006).

스웨덴의 양질의 ECEC 정책은 육아지원 정책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여, 1980년대 출산율이 1.5 수준이던 것이, 1996년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유아학교 개혁의 일환으로 만 1-6세까지의 유아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이후, 출산율이 1.85로 상승되었다. 스웨덴의 유아학교의 교사 및 유아 비율은 1:5.3 명이며, 유급 육아휴직으로 인해 만 1세 이전의 유아들은 시설보다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0-80년대 유아학교제도의 확대, 1998년 유아학교 개혁 이후, 2009년 1-5세 아동의 90% 이상이 유아학교와 ECEC 기관에 다니는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교육정책의 큰 틀에서 유아학교(만1-5세)와 유아학급(preschool class)(만6세), 초등학교(9년), 여가활동센터 간 연계성을 높였으며, 교사 양성체제를 학교 체계간에 전체적으로 통합하였다. 2001년 유아학교교사, 여가활동교사, 초등교사, 아동보육사 교사양성체계를 통합하고, 3.5년간의 양성기간 중 첫 1년은 공통과정을 운영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된 목표, 가치, 철학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스웨덴의 유아학교는 정치경제적 상황과 정부 및 정치권의 변화, 가족 지원정책과 양성평등, 아동 권리의 문제, 교육정책의 이슈 등이 맞물려 오랜 기간의 찬반 논쟁과 구체적 요구사항,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Skolverket, 2007). 2002년 ECEC 비용 상한 제도를 마련하여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보도록 하였으며, 적절한 시설 지원체계의 확립으로 유아학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2003년 이후, 스웨덴은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 유아학교 체제를 만 6세에서 만 3-4세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모든 아동을 위한 유아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필요성에 근거하였다.

2011년 교사양성체계에 대한 개혁이 있었는데, 이전에 통합되어 있던 교사 자격이 세분화되어 유아학교-초등학교-중고등학교-직업교사로 4개의 학위체계로 구분되었다. 스웨덴의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은 사범대 졸업 또는 직업학교(보육과)를 졸업하면 유아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사범대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갖추려면 전공학점 기준 총 210학점 이수로 7학기 3.5년 교육연한의 기준이 필요하다.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전공 교과목은 교육학적 핵심(60), 현장학습(30), 유아교육과목(120)으로 구성되며, 이 중 졸업논문(15), 교육학적 핵심(가치체계, 사회적 관계, 갈등 해결능력, 리더십, 교육과정 이론 등)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학적 핵심은 모든 교사(초-중-고-직업)가 동일하게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유아학교와 의무교육의 연계성과 아동 입장에서 학교간 전이의 긍정적 경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만 3세 이상의 아동 모두에 대해 반일제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이용에 대해 부모부담비율을 평균 10% 내외로 제한, 부모 부담이

월 20만원을 넘지 않는 많은 재원을 요하는 이상적인 복유립복지모델이다(OECD, 1999). 반일제에 대해서는 부모의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보편주의 적용과 3시간 이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해 실제 이용시간과 소득, 자녀수 대비로 부담액을 산정하는 점, 실제 이용시간은 반일제에서 시간연장, 야간보육까지 부모의 근로시간에 맞춰 다양하게 제공되는 점, 그밖에 종일제 공보육시설 외 사적영역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변화해 온 점, 그러나 ECEC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시민주의 국가운영철학을 바탕으로 아동 중심의 교육적 특성에 근간한 교육과정의 운영, 교사의 다양한 배출경로, 유아교사 자격의 3.5년 대학연한, 교사의 8시간 근무시간 준수 및 안정된 대체교사 운용 등은 주요하게 참조해야할 사항이다(서문희 외, 2010; 최윤경 외, 2015).

그러나 스웨덴의 선진적인 ECEC 정책과 인프라 내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논쟁 속에서 여전히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개개인의 생활 유지와 보호의 책임이 사회에 전가되면서 가족 구성원간의 기능 약화,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한 복지예산의 긴축 운영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와 수혜자간의 관계가 인간적인 교류보다 행정적, 업무적인 관계로 전락, 일부 이민자 그룹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금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현상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스웨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나, 스웨덴에서도 지원체계의 확립과 함께 이에 대한 비효율적인 누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교육개방으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이 활발해져, 스웨덴에서 공보육·교육 비율이 더 이상 절대 다수가 아니다. 2005년 기준,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의 7.4%, 고등교육의 13.1%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CEC 교육·보육 정책의 측면에서 스웨덴 아동의 건강하고 역량있는 성장 발달을 위해 교사 양성과정과 자격기준의 강화,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한 교육개혁 작업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부 산하로 완전 통합된 유형으로, 영유아교사의 자격 강화와 교육과정의 변화가 통합된 교육의 체계 내에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원화 된 완전통합 모형 내에서도, 다양한 자격 기준의 교사가 상호 협력의 팀 티칭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의 기저에는 교사의 권리와 근로복지, 임금수준이 존중되는 사회적 배경과 문화에 기초하고 있다.

스웨덴의 육아지원 및 ECEC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발전된 모형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기저에 관심이 많다. 모두가 일하고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의식과 이에 대한 가치의 부여, 그리고 이에 기초한 사회 전반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과 경제발전의 지속, 근로복지의 구현이 육아지원 및 ECEC 정책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 (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문무경 (2006). *스웨덴의 육아정책: 유아교육과 보육, 학교교육의 통합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최윤경·최혜선·성혜영 (2010).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지원체계 개편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이삼식 (2012). 외국의 보육·양육정책: 스웨덴 사례. *보건·복지 Issue & Focus*, 169호, 1-8.
- 이혜원 (2013).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서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최윤경·김은설·신동주·장혜진·박창현·홍성은 (2015). *유아교육(ECEC) 교원 양성·자격 정비 및 재교육 국제비교 연구*. 세종: 교육부.
- 한유미·오연주·권정윤·강기숙·백석인 (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서울: 학지사.
- Europa (2015). *Sweden: Successful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Retrieved from http://europa.eu/epic/countries/sweden/index_en.htm
- European Parliament (2010). *The Lisbon Strategy 2000-2010: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methods used and results achieved*. Retrieved from <http://www.europarl.europa.eu/document/ctivities/cont/201107/20110718ATT24270/20110718ATT24270EN.pdf>
- Hillman, J., & Williams, T. (2015). *Early years education and childcare: Lessons from evidence and future priorities*. London: Nuffield Foundation.
- OECD (1999).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Country Note.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du/school/2534972.pdf>

-
- OECD (2012). *Start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3). How D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Policies, Systems and Quality Vary Across OECD Countries? *Education Indicators in Focus*, No. 11, doi: <http://dx.doi.org/10.1787/5k49czkz4bq2-en>
- OECD (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doi: <http://dx.doi.org/10.1787/eag-2015-en>
- Samuelsson, I. P., & Sheridan, S. (2009). Preschool Quality and Young Children's Learning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3(1), 1-11.
- Statistics Sweden (2014). *Yearbook of Educational Statistics 2015*.
- Statistics Sweden (2015). *Preliminary Population Statistics 2015*. Retrieved from http://www.scb.se/en/_/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Population/Population-composition/Population-statistics/Aktuell-Pong/25795/Monthly-statistics--The-whole-country/25896/
- Stockholm University (2015). *Programm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10 hp*. Retrieved from <https://sisu.it.su.se/info/index/LF%C3%96RY/en>
- Sveriges officiella statistik (2005). Sveriges officiella statistik-årlig rapport för 2004.
- Sveriges officiella statistik (2015). Sveriges officiella statistik-årlig rapport för 2014.
- Swedish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2015). *Study levels and degrees*. Retrieved from <http://studera.nu/startpage/higher-education-studies/higher-education-in-sweden/study-levels-and-degrees>

-
- Swedish Higher Education Authority (2015). *Ansökan om tillstånd för lärarexamen*. Retrieved from <http://www.uka.se/utbildningskvalitet/tillstandforlararexamen.4.782a298813a88dd0dad800011489.html>
-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The Swedish Education System*. Retrieved from <http://skolnet.skolverket.se/polopoly/utbsys-eng/>
-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Förskolepersonal: Fortbildning för förskolepersonal*. Retrieved from <http://www.skolverket.se/kompetens-och-fortbildning/for-skolepersonal>
-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Förskolepersonal: Introduktionsperiod*. Retrieved from <http://www.skolverket.se/kompetens-och-fortbildning/forskolepersonal/introduktionsperiod-1.237093>
-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Förskola, pedagogisk omsorg och fritidshem: Avgiftsnivåer för maxtaxa*. Retrieved from <http://www.skolverket.se/skolutveckling/statsbidrag/forskola-pedagogisk-omsorg-fritidshem/maxtaxa/avgiftsnivaer-for-maxtaxa-1.9183>
-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5). *Preschool: Fees*. Retrieved from <http://www.skolverket.se/om-skolverket/andra-sprak-och-lattlast/in-english/the-swedish-education-system/preschool/fees-1.72241>
-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015). *Child allowance*. Retrieved from http://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adoptera_barn/barnbidrag/!ut/p/a0/04_Sj9CPykyssy0xPLMnMz0vMAfGjzOJNPFycDd2dDbwNXP1dDBx9jTwDzc1DjA2czfSDU_P0C7IdFQEMrEd2/
- Taguma, M., I. Litjens and K. Makowiecki(2013). *Quality 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weden 2013*. Paris: OECD Publishing.

The Official site of Swenden, *10 Things that anke Sweden family-friendly*.
Retrieved from <https://sweden.se/society/10-things-that-make-sweden-family-friendly/>

[법안]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09). The Boost for Preschool 법안

[참고 웹사이트]

Centrala Studiestödsnämnden, <http://www.csn.se>

Department for Education (UK),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ducation>

Lönestatistik (급여통계사이트), www.lonestatistik.s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Sweden),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education-and-research/>

OECD Data, Domestic product, <https://data.oecd.org/gdp/gross-domestic-product-gdp.htm>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OECD, Stat, stats.oecd.org

Skolverket, <http://www.skolverket.se/>

최윤경

서울대학교 소비자이동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아동가족학)
Michigan State University Ph. D. (아동학)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윤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아동가족학)
The Ohio State University Ph. D. (Human Development)
현 스웨덴 Örebro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이혜민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아동가족학)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5

스웨덴의 육아정책(II)

: 교사정책을 중심으로

발행인 • 우남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편역 • 최윤경 · 김윤희 · 이혜민
발행일 • 2015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http://www.kiccoe.re.kr>
대표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730-3313
인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ISBN 979-11-85941-67-7 93330

정가: 5,000원

